

## 우리나라 婦人の 避妊受容性 및 使用樣相에 관한 研究

### A Study on the Acceptance and Pattern of Contraceptive Use in Korean Women

서울大學校 醫科大學 人口醫學研究所

金 應 翊

#### 序 論

우리나라는 過去 15年間 出生力을 低下시키기 위하여 保健組織網을 통하여 地域社會의 可妊夫婦에게 避妊普及을 위한 勞力을 繼續傾注하여 많은 成果를 견우어왔음은 이미 周知하는 바이다.

人口는 量과 質의 두 側面에서 고려되어야 하는데 우선 量的인 면에서는 資源, 領土, 經濟 및 社會發展 등에 따라서 適正人口가 檢討되어야 하며 質의인 면에서는 人口의 年齡構造, 家庭保健水準, 榮養狀態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優生學的인 見地에서 볼때 더욱 重要視된다(Ehrlich, 1970; 權, 1975).

人口의 自然增加는 정해진 地域內에서의 出生과 死亡의 差異에서 發生하며 開發途上地域에서는 높은 出生率로 그 自然增加가 높은 수준을 維持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出生率을 저하시키기 위하여는 受胎調節로서 避妊을 實踐하게 된다(金, 1974). 出生力 水準의 變動을 決定하는 要因으로서 다음의 세가지를 指摘할 수 있다. 첫째, 平均結婚年齡의 上昇에 따라서 結婚期間이 단축되고 女性의 可妊期間이 단축되므로 出生力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둘째, 年齡構造의 變化에 따라서 人口構造가 老齡化되면 出生力이 低下될 수 있고 셋째, 可妊女性의 避妊實踐與否에 따라서 人爲的인 出生力變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Watson, 1972). 우리나라의 경우 人口構造의 變化는 出生力變化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思料되며 避妊實踐水準이 出生力 低下에 가장 重要한 要因이 되고있다.

避妊의 궁극적인 목적은 원치 않는 妊娠을 방지하는 데 있다. 1970年初부터 unwanted pregnancy를 해결하기 위하여 地域社會醫學이란 次元에서 避妊을 권장하고 있다고 하였다(Brown, 1972). 따라서 避妊을 하기 위한 家族計劃事業은 對象者에게 우선 小子女를 갖도록 啓蒙教育을 하며 避妊서비스로 希望子女數 範圍內

에서 出生調節을 하는 데 있다. 家族計劃서비스상의 가장 어려운점의 하나는 避妊受容과 避妊實踐과 연관된 사항으로 요약될 수 있다. 即, 避妊의 態도와 實踐간에는 큰 격차가 있다는 점이다. 實際로 全 可妊女性중에서 避妊方法에 관한 知悉率이나 贊成率이 매우 높다고 해서 곧 實踐率이 높은 것은 아니다(宋, 1974). 그뿐만 아니라 避妊을 한다하여도 避妊方法에 따라서 避妊効率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 使用樣相에 따라서 實際로 出生率에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可妊婦人の 避妊受容 및 實踐樣相을 檢討하고 避妊受容 可能層의 規模와 이들의 特性을 考察코져 試圖하였다.

#### 研究資料 및 方法

各 地域의 出生力을 把握하고 그 出生力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들을 比較 分析하기 爲하여 世界出生力調査가 國際人口科學研究聯盟(IUSSP)과 UN共同支援으로 國際統計研究所(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의 주관으로 실시되었으며 우리나라도 그 調査의 一環으로 1974年 7月 1일부터 1977年 12月末까지 3.5年間의 研究期間으로 出生力調査가 遂行되었다.

本 研究資料는 3種類의 標本調査 即, 家口調査 (21, 523 標本家口), 個人調査 (既婚婦人 5,420名), 地域社會調査(125個 調査區)중에서 15~49歲的 可妊婦人을 對象으로 한 個人調査資料를 基礎로 한 것이다.

調査된 5,420名の 既婚婦人은 모두 可妊女性으로 避妊이 必要한 婦人은 아니다. 따라서 本資料의 分析은 이들 既婚婦人중 避妊과 直接 關聯을 갖는 妊娠露出狀態(Exposure status)에 있는 婦人에 限하여 避妊樣相을 觀察하였다.

婦人의 可妊性은 安定的인 兩性結合인 結婚時期부터 始作하게 된다. 結婚에 依한 可妊力은 結婚의 中斷狀態(死別 또는 離婚)나 一定期間 配偶者와의 別居 또는

Table 1. The Current Exposure Status of All Ever-Married Women

	Under 24yrs	25~34yrs	35~44yrs	45yrs & more	All ages(%)	N
Fecund Women	71.3	78.3	67.7	18.4	66.3	3,593*
Not Fecund Women	0.9	7.4	30.2	81.4	23.8	1,290
Infecund	0.2	1.5	13.8	55.4	12.3	668
Widowed, Divorced & Separated	0.5	2.1	9.1	21.4	6.8	368
Sterilized	0.2	3.8	7.3	4.6	4.7	254*
Currently Pregnant Women	27.9	14.4	2.2	0.1	9.9	537
All Women	11.2	41.5	34.9	12.4	100.0	5,420 (3,847)*

夫婦生活의 頻度, 禁慾, 不妊症 및 閉經等 生理的 與件에 의한 影響을 받는다. 이들 可妊狀態에 따라서 妊娠露出狀態는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 範疇에 의하여 區分할 수 있었다.

- i) 可妊婦人(Fecund women)
- ii) 可妊性 喪失婦人(Infecund women)
- iii) 死別, 離婚 및 別居婦人(Widowed, Divorced or Separated women)
- iv) 不妊手術婦人(Couple sterilized)
- v) 妊娠中인 婦人(Currently pregnant women)

이 區分은 調査時點에서 婦人集團의 妊娠 危險 露出度를 表示한 것이다. 有配偶可妊婦人과 妊娠露出狀態에 있는 婦人의 差異는 有配偶可妊婦人中에서 妊娠中인 婦人과 避妊을 目的으로 不妊手術을 받은 婦人(男便의 경우 包含)을 除外시킨 것이다. 妊娠中인 婦人은 그 妊娠이 終結되지 않고는 妊娠이 될수 있는 可能性은 없다. 그러므로 妊娠中이 아닌 婦人中에서 男便과 同居狀態에 있고 또 生理적으로 可妊能力을 가진 婦人

으로 妊娠露出狀態를 規定한다. 이와 같은 對象婦人의 有配偶狀態와 可妊性與否는 調査時點에서 婦人自身の 應答에 基礎를 둔 것이다. 本調査資料에서 既婚婦人의 妊娠露出狀態는 表 1에 呈示된 바와 같다.

### 研究 成績

#### 1. 可妊女性의 年齡 및 生存子女數에 따른 受胎調節實踐

妊娠露出狀態에 있는 婦人 3,847名중에서 避妊을 實踐하고 있는 婦人은 45.7%로서 어떤 避妊法을 사용하고 있거나 避妊을 目的으로 不妊手術을 받은 婦人이다 (表2參照). 이러한 現在避妊實踐率은 20代의 可妊女性으로 2名未滿의 子女를 갖인 婦人中 約18%만이 避妊을 實踐하고 있으며 婦人의 年齡이 30歲以上으로 2명 이상의 子女를 갖인 경우 實踐率은 50%이상으로 增加되고 있다.

Table 2. The Current Practice of Fertility Regulation by Age of Women and Number of Living Children

Age	Number of living children						All Parities (%)	N
	0	1	2	3	4	5 & more		
Under 20	26.3	10.5	—	—	—	—	17.9	39
20~24	18.1	13.9	28.3	23.1	—	—	18.7	395
25~29	15.8	18.8	44.3	42.4	33.8	60.0	35.9	913
30~34	—	22.4	57.1	56.9	50.2	49.5	50.9	930
35~39	—	33.3	59.7	67.6	68.4	52.7	60.3	858
40~44	—	—	62.1	45.9	64.1	51.3	52.1	557
45~49	—	—	50.0	60.0	39.3	45.5	45.2	155
All Ages	16.1	16.9	46.9	53.8	56.7	49.7	45.7	3,847

**Table 3.** The Current Practice of Fertility Regulation by Level of Education and Number of Living Children

Level of Education	0	1	2	3	4	5 & more	All Parities (%)	N
No schooling	—	17.6	27.9	55.7	51.6	42.4	44.7	640
Primary school	4.0	11.3	41.0	48.1	54.6	51.6	43.4	2,002
Middle school	20.5	17.9	45.0	59.0	66.7	76.4	45.2	626
High school	32.5	21.7	64.5	62.2	70.4	75.0	53.4	446
College or University	25.0	45.5	67.3	77.8	71.4	70.0	62.2	127
Total	16.1	16.9	46.9	53.8	56.7	49.7	45.7	3,841

\* Excluding 6 cases which were not stated among all eligible women.

2. 可妊女性の 教育水準 및 生存子女數에 따른 受胎調節實踐

表 3에 示된 바와 같이 國校卒業인 婦人の 경우 避妊實踐率이 43.4%이며 차차 그 率은 教育程度에 따라서 增加하여 大學以上인 婦人の 경우 62.2%로 큰 차이가 있다. 即,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避妊實踐率도 많아지고 있다.

3. 避妊方法 및 生存子女數에 따른 受胎調節實踐

避妊方法別 現在實踐率은 表 4에 있는 바와 같이 家族計劃서비스에서 主軸을 이루고 있는 避임약

(11.0%), 루우프(10.4%), 콘돔(6.8%) 및 불임수술(6.6%)등과 같은 效果的인 避妊法(Efficient-contraceptive methods)에 의한 實踐率은 78% (3/4)이며, 月經週期法이나 性交中絶法과 같은 非效果的인 避妊法(Inefficient contraceptive methods)에 의한 實踐率은 全 避妊者중 1/4을 나타내고 있다.

4. 全可妊女性에 대한 避妊實踐樣相

避妊經驗이 없는 婦人과 過去 避妊經驗者와 現在 實踐中인 婦人으로 區分하여 避임양상과 향후 避임실천에 대한 意思는 表 5와 같다. 全既婚婦人中 避임경험

**Table 4.** The Current Practice of Fertility Regulation by Contraceptive Methods and Number of Living Children

No. of living children	Pill	IUD	Condom	Sterilization	Rhythm	Withdrawal	Others	Current used (all Methods) (%)	Not current used (%)	N
Under 2	8.0	6.2	6.6	3.1	5.1	2.4	1.0	32.4	67.6	1,381
3	12.4	11.3	8.2	8.5	7.7	4.3	1.4	53.8	46.2	840
4	13.6	14.0	7.3	9.3	7.1	3.3	2.1	56.7	43.3	737
5 & more	12.3	13.3	5.2	8.1	4.9	4.0	1.9	49.7	50.3	889
All	11.0	10.4	6.8	6.6	6.0	3.4	1.5	45.7	54.3	3,847

**Table 5.** The Pattern of Contraceptive Use in All Ever-Married Women by Number of Living Children

No. of living children	Never User				Ever User					Current User (%)	N
	Intends future use	Does not intend future use	Infecund widow divorce & separated	Sub-total (%)	In open interval	In last closed interval	Earlier interval	Infecund	Sub-total (%)		
Under 2	28.1	20.1	11.9	60.1	2.2	9.2	6.0	0.8	18.2	21.7	2,075
3	15.6	6.6	9.0	31.2	4.9	10.2	7.6	2.9	25.6	43.2	1,046
4	10.6	6.2	12.4	29.2	3.9	8.3	9.4	5.7	27.3	43.5	966
5 & more	9.5	7.3	20.1	36.9	4.3	7.7	9.3	8.6	29.9	33.2	1,333
All	18.0	11.9	13.5	43.4	3.5	8.9	7.7	4.0	24.1	32.5	5,420

이 전혀 없는 경우는 43.4%, 앞으로 避妊을 할 意思를 表明하고 있는 婦人은 18.0%, 향후 避妊을 할 意思가 없는 婦人은 11.9%이며 避妊이 必要없는 婦人은 13.5%로 構成되어 있다.

5. 可妊婦人의 避妊實踐與否에 따른 開放出產間隔

過去 및 現在避妊實踐이 출산간격에 미치는 影響을 알기 위하여 不妊手術을 除外한 1回以上 出產經驗을 가진 3,426名을 대상으로 본 結果는 表 6과 같다. 피임방법을 사용했거나 현재 피임실천중인 婦人에서 平均出產間隔은 56.6個月이었으며, 피임을 전혀 하지않은 婦人에서는 平均 30.7個月로 約 26個月以上 延長되

Table 6. Length of Open Interval by Use of Contraception and Age of Women

Age	All women (months)	Currently used & ever used (months)	Never Used (months)	N
Under 24 yrs	11.5	19.9	9.6	342
25~34 yrs	25.2	34.8	17.5	1,688
35~44 yrs	68.9	77.8	55.8	1,272
45 yrs & more	106.2	110.8	103.1	124
All ages	43.0	56.6	30.7	3,426*

\* Response women are not including sterilized women.

Table 7. The Pattern of Contraceptive Use in Married Fecund Women by Children Preference

Children preference	Never User			Ever User (%)	Current User (%)	N
	Intends future use	Does not intend future use	All(%)			
Desired size < Actual size	11.9	9.0	20.9	28.4	50.7	1,435
Desired size = Actual size	17.9	11.6	29.5	22.8	47.7	1,291
Desired size > Actual size	34.9	22.1	57.0	18.2	24.9	1,624
All	22.3	14.7	36.9	22.9	40.2	4,350*

\* Excluding 34 responses who were not stated among 4,384 married women.

\*\* 4,350 fecund women are including 537 current pregnant women.

Table 8. The Pattern of Contraceptive Use by Desire for Children in the Future

Desire for children	Never User			Ever User (%)	Current User (%)	N
	Intends future use	Does not intend future use	All(%)			
Want more children	44.3	25.3	69.6	17.3	13.1	1,191
Does not want any children	14.1	10.1	24.2	25.0	50.9	3,140
Undecided	9.3	51.9	61.1	27.8	11.1	53
All	22.3	14.7	37.0	22.9	40.1	4,384

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대상부인의 年齡別로 有意性을 提示하고 있다.

6. 可妊婦人의 出產週好別 避妊樣相

可妊女性의 出產行態別 避妊樣相을 파악하기 위하여 現存 子女數와 希望子女數간의 차이점과 避妊樣相은 表 7과 같다.

本表에서 現存 子女數가 希望子女數보다 많거나 동일한 경우의 避妊實踐率은 48~51%로서 現存 子女數가 希望子女數보다 적은 婦人의 경우 (24.9%)보다 약 2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7. 全可妊女性의 向後 子女希望與否別 避妊樣相

全體 有配偶可妊婦人(4,384名)중 子女希望與否別 避妊樣相은 表 8과 같다.

子女를 希望하는 婦人에서 現在 避妊을 實踐하고 있는 婦人은 13.1%에 不過하지만 避妊經驗이 없는 婦人은 69.6%이며 앞으로 避妊할 意思가 있는 婦人은 44.3%에 달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子女를 원하지 않는 婦人중에서 現在 피임 실천율은 50.9%이며 過去 피임실천자 25.0%까지 包含하면 約 3/4이 避妊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8. 可妊婦人의 追加子女希望與否別 避妊樣相

妊娠露出狀態에 있는 婦人中 피임실천율은 45.7%로서 向後 더이상 子女를 원치않는 婦人의 경우 避妊實

Table 9. The Pattern of Contraceptive Use According to Future Want More Children or Not

Want more children	Not current user(%)	Current User			N
		Any inefficient Method	Any efficient Method	All (%)	
Future want more children	83.9	4.2	11.9	16.1	971
Future does not want children	44.1	12.3	43.6	55.9	2,856
Future undecided more children	70.0	10.0	20.0	30.0	20
All women	54.3	10.2	35.5	45.7	3,847

踐率は 55.9%이었으나 앞으로 子女를 希望하는 경우는 16.1%만이 피임을 實踐하고 있다. 子女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婦人중 43.6%는 효과적인 피임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12.3%의 婦人은 비효과적인 피임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子女를 원하지 않는 婦人중 44.1%의 可妊婦人은 아무런 피임도 하지 않는 狀態로 있을 수 있다(表 9參照).

### 考 按

最近 地域社會의 出産力을 低下시키기 위한 方法으로 受胎調節을 많이 利用하고 있으며 避妊實踐態 또는 그 成果 및 效果를 測定하는데 있어서 一般的으로 出産力 調査를 通하여 資料를 蒐集分析한다(Bogue, 1971).

이때 避妊實踐을 할 對象婦人은 妊娠力을 가진 有配偶婦人이다. 그러므로 避妊樣相을 把握하기 위하여는 可妊力이 있는 婦人을 對象으로 分析하여야 한다.

受胎調節 實踐率을 算出하는데 있어서는 從來 方法과 같이 特定年齡集團 (15~44歲, 20~44歲 또는 15~49歲等)의 有配偶婦人數에 의하여 推定하는 것 보다 有配偶婦人중 妊娠露出狀態에 있는 可妊婦人만을 對象者로 하는것이 分析의 精度와 妥當性이 있다고 보았다. 年齡別 避妊實踐率은 文(1972) 및 宋(1974)의 報告에서 1971年の 年齡別 避妊實踐率은 全既婚婦人中 約 25%이었으며 이는 主로 30代의 婦人에서 높은 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本調査에서는 그보다 約 20%가 增加한 45.7%로서 피임율의 증가는 젊은 年齡層에서 현저한 증가를 나타냈다. 特히 20代婦人中에서는 1971年の 避妊率보다 3倍以上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樣相은 최근 子女所有 pattern의 變化 및 피임행태 등의 變化가 있었음을 豫測할 수 있겠다. 또한 婦人의 年齡이 30歲以上으로 적어도 두 자녀를 가진 婦人에서 50%以上으로 增加되고 있는 양상은 避妊行態가 出産間隔의 調節보다는 一定數의 希望子女數를 가진후에 避妊을 受容하는 경향이 높은데 있다고 思料된다.

또한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避妊實踐率도 增加되고 있어 教育程度가 避妊行態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이 示唆되고 있으며 이 結果는 文(1972) 및 宋(1974)의 報告와 一致한다.

避妊實踐은 實踐率뿐만이 아니고 避妊方法에 있어서 各 方法別 避妊效率이 重要하다. WHO에서는 受胎調節法은 다음과 같은 3가지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避妊效率(Use-effectiveness)이 確實해야 하고 둘째, 많은 可妊女性들이 活用할 수 있도록 受容性(Acceptability)이 커야하며 셋째, 避妊法을 使用하는 可妊夫婦 雙方의 健康上 無害하고 副作用이 없이 安全性(Safety)이 높아야 한다(WHO, 1976). 全 可妊女性中 避妊實踐者 45.7%中에서 Efficient contraceptive methods 使用者는 約 3/4이 되며 Inefficient contraceptive methods 使用者는 約 1/4로 恒常 失敗妊娠의 危險이 있다. Diggory (1971)는 원하지 않는 妊娠(unwanted pregnancy)數는 避妊失敗를 測定하는 한 方法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非效率인 避妊法을 使用하고 있는 婦人은 安全한 避妊法으로 轉換해서 보다 避妊效率이 높도록 하여 失敗妊娠을 防止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出産水準을 測定하는 하나의 指標로서 開放出産間隔을 利用하는 事例가 많다. 또한 生命表 方式에 依한 出生間隔의 平均値 計算으로 效果的인 分析을 할 수 있다(Sheps, 1965). 그러나 出産間隔調節을 위한 避妊을 했을 경우 그 算出에 있어서 妊娠消耗은 없는 것으로 假定하고 出生後의 一時的 不妊期間의 差異에 따라 個人間에 달라질 수 있겠으나 萬一 피임을 失敗하는 경우 人工妊娠中絶을 하거나 또는 授乳期間에 따라서 出産間隔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豫想된다(權, 1975). 그러므로 本調査의 結果보다 實際로는 더욱 出産間隔이 延長된다고 解釋된다.

可妊婦人中 더 이상 子女를 원하지 않으면서 避妊을 하고 있지 않은 婦人(44%)으로 妊娠을 방지하고 있거나, 出産間隔을 延長시키는데 있어서 出産計劃과 避妊

	Future birth wanted	Future birth not wanted	Undecided	
Use of efficient methods	(3.1) 11.9	(32.3) 43.6	(0.1) 20.0	35.5
Use of inefficient methods	(1.0) 4.2	(9.2) 12.3	— 10.0	10.2
Not current used	(21.2) 83.9	(32.7) 44.1	(0.4) 70.0	54.3
	(25.3)	(74.2)	(0.5)	(100.0)

行爲間에 一致되지 않는 階層은 앞으로 더욱 効率的인 避妊을 하도록 接近을 하여야 할 一次的인 對象集團이 라 하겠다.

上記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避妊을 하지 않는 婦人은 全避妊露出狀態에 있는 婦人중 약 1/3(32.7%)을 占有하고 있으며 이러한 對象이 모두 避妊實踐群으로 轉換된다고 假定할 때 全體 避妊可能 對象者中 避妊實踐率은 約 75% 수준으로 上昇될 수 있을 것으로 期待된다.

### 結 論

우리나라 可妊婦人의 避妊受容性 및 實踐樣相을 把握하기 위하여 世界出產力 調查資料중 個人調查資料를 利用하여 既婚婦人중 妊娠露出狀態에 있는 婦人 3,847名을 對象으로 分析 檢討하여 다음과 같은 所見을 얻었다.

1. 全既婚婦人(5,420名)중 有配偶婦人으로 可妊性을 保有하고 있는 妊娠露出狀態의 婦人은 約 2/3(66.3%)이었다. 한편 調査時妊娠中인 婦人은 9.9%이었으며 可妊力을 喪失한 婦人은 12.3%이었다.

2. 妊娠露出狀態婦人 中 現在避妊實踐率은 45.7%이었다.

避妊方法別로는 避妊効率이 높은 方法을 使用하고 있는 婦人이 約 3/4으로 經口避妊藥, 子宮內裝置등을 使用하고 있었으며, 避妊効率이 낮은 方法을 使用하는 婦人은 約 1/4로 月經週期法, 性交中斷法등을 쓰고 있다.

3. 可妊婦人중 적어도 1名の 出產(妊娠中 包含)을 한 婦人에서 開放出產間隔은 避妊을 한 婦人은 56.6個月이고 避妊을 하지 않았던 婦人은 30.7個月이었다.

4. 可妊婦人중 子女를 더 이상 원치 않는 婦人은 74%(2,856名)로서 그중 現在 避妊을 實踐하고 있는 婦人은 55.9%이었다.

### —ABSTRACT—

## A Study on the Acceptance and Pattern of Contraceptive Use in Korean Women

Eung Ik Kim

The Institute of Reproductive Medicine and  
Population,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individual survey in 1974 Korean National Fertility Survey, based on 5,420 ever-married women in the ages 15-49 a subsample of the ever-married women in these ages enumerated in the household survey, provides the basis for much of the analysis presented in this paper, dealing with pattern of contraceptive use as related to background variables.

1. The surveyed women's current degree of exposure to risk of conception is defined by a composite variable referred to as "exposure status" in this study. By the definition employed, two-third of all ever-married women 15-49 are "exposed" in the sense that they are currently married, not pregnant, and free of fecundity impairments. About 10 per cent of all surveyed women reported being currently pregnant. Fecundity impairment accounts for 11 per cent of those who were childless. Fecundity impairment generally increases with age.

2. Current use of contraception was examined for those women who are fecund and exposed to the risk of conception, thus excluding the unmarried, the currently pregnant, and those with reported fecundity

impairments other than voluntary sterilization (either vasectomy or female sterilization) for contraceptive purpose. Of the 3,847 exposed women, who comprised 71 per cent of the ever-married subject to the individual survey, 46 per cent reported current use of contraception, including sterilization for contraceptive purposes.

Current use is related quite strongly to the sex composition of the family. Korean couples are not likely to be using contraception much unless have at least two children. In short, the desire for at least two children still exerts a major influence on Korean fertility behaviour. The pill (24%) and loop (23%) are the most popular methods in current use, together comprising half of all use. Condom (15%) and rhythm (13%) follow in order but are used more by those with small rather than large families.

3. The respondents in the survey were classified by "pattern of contraceptive use," which combines in a summary fashion several variables examined separately such as current or past use of contraception and a few new variables such as future intention to use among those who never used so far. In this analysis was restricted to the future intentions of the currently married, fecund never-users. Overall, 60 per cent of them stated an intention for future use, with no variation by current family size.

The mean length of the open birth interval for the currently married, fecund women with at least one live birth is 86 per cent longer for those who report ever use of contraception in that interval as compared to those who report no use (56.6 months vs. 30.7 months).

4. More than half (56%) of the exposed women who want no more children (comprising about 22 per cent of all ever-married women in the sample) were not currently using an efficient contraceptive method.

The relative size of the group of women who might be given special attention in the family planning programme because of their obvious need for family planning is measured by the proportion of all currently married women who state that they do not want any more children but are not currently using an efficient contraceptive method though exposed. About

a third of all currently married women in the ages 15-49 fall into this category.

## REFERENCES

- Bogue, D.J.: *Demographic techniques of fertility analysis*. Community and Family Study Center, University of Chicago, pp. 4-14, 25-39, 1971.
- Bogue, D.J. and J. Nelson: *Fertility components and contraceptive history techniques for measuring contraceptive use-effectiveness*. Community and Family Study Center, University of Chicago, pp. 24-40, 1971.
- Brown, H.W.: *Fifty years of community and family planning*.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IPP, 14: 116, 1972.
- Cho, K.S.: *A study on use-effectiveness and extended use-effectiveness of contraceptive methods among Korean women*. KIFP, 1975.
- Diczfalusy, E.: *Regulation of human fertility, proceedings of symposium on advances in fertility regulation*. Moscow, pp. 11-19, 1977.
- Diggory, P.: *The unwanted pregnancy*. *Journal of Biosocial Science*, Supplement 3: 127-132, 1971.
- Ehrlich, P.R.: *Population resources environment. Issues in human ecology*, W.H. Freeman & Company, pp. 51-76, 199-207. 1970.
- Freedman R., P.K. Welpton & A.A. Campbell: *Family planning, sterility and population growth*. University of Michigan, 1969.
- Frejka, Tomas: *The future of population growth, alternative paths to equilibrium*. P.C., New York, pp. 106-115, 1973.
- Greep, R.O., M.A. Koblinsky & F.S. Jaffee: *Reproduction and human welfare: a challenge to research*. The MIT Press, pp. 53-65, 68-75, 1976.
- Harper, M.J.K., & et al.: *Ovum transport and fertility regulation*. WHO, Geneva 1975.
- Henry, L.: *On the measurement of human fertility*. American Elsevier Publishing Company, Inc., N.Y., pp. 205-217, 1972.
- IPPF: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ize and maternal and child health*. Working Paper No. 5, 1970.
- Johannisson, E.I.: *Recent advances in IUD's, intra-*

- uterine contraceptive devices I, current problems in human fertility control. WHO, pp.90-98, 1974.
- Kim, T.R.: National intra-uterine contraception report. NFPC, pp.120-142, 1970.
- Kim, E.S.: A remark on open interval. Family planning quarterly report, KIFP, 8:80, 1974.
- Kim, C.J. & S.H. Han: Study on the maximization of family planning services among high fertility risk women. KIFP, 1977.
- Kim, Y.W. et al.: Fertility regulation. KIFP, pp.16-18, 40-43, 1974.
- Kistner, R.W.: The pill, facts and fallacies about today's oral contraceptives. Delacorte Press, N.Y., 1969.
- Kong, S.K.: A study on the acceptability of IUD and its effect upon fertility control. Annual report of family planning. NFPC, pp.212-237, 1970.
- Koh, K.S. & D.P. Smith: The Korean 1968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survey. KIFP, 1970.
- Kwon, E.H. et al.: The effect of an oral contraceptive upon lactation. IRMP, 1975.
- Kwon, E.H.: Population & health. The Seoul Journal of Medicine, 6(3): 163, 1975.
- Mauldin, P.: Birth averted by family planning program. Studies in family planning No. 33, 1968.
- Moon, H.S., et al.: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an interim report on 1971 fertility abortion survey. KIFP, pp.87-103, 1972.
- Moon, H.S. & S.H. Han: Use-effectiveness, extended use-effectiveness and demographic effectiveness of IUD and oral pills. KIFP, pp.9-29, 1973.
- Population Council: A manual for surveys of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N.Y., 1970.
- Potter, R.G.: Estimating births averted in a family planning program in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a world view. the University of Michigan, 1969.
- Reynolds, Jack: A frame work for the selection of family planning program evaluation topics. Manuals for evaluation of family planning and population programs, No. 1, Columbia University, 1970.
- Sheps, M.C.: An analysis of reproductive pattern in an american isolate. Population Studies, 19, 1965.
- Song, K.Y., et al.: 1973 national family planning and fertility survey. A Comprehensive Report, KIFP, pp.83-159, 1974.
- Song, K.Y.: Birth averted by family planning in Korea: 1960-1970. KIFP, p.30 1973.
- Stoeckel, J.: Differentials in fertility, family planning practice and family size values in South Korea. Studies in Family Planning, N.Y., 1975.
- Watson, W.B.: Demographic problems confronting Korea's family planning program. KIFP, 1972.
- WHO: Health aspects of family planning. Technical Report Series No. 442, WHO, Geneva, 1970.
- WHO: Report of special programme of research, development and research training in human reproduction. WHO, Geneva, pp.6-9, 1977.
- WHO: Statistical indices of family health. Technical Report Series 587. WHO, Geneva, pp.29-40, 1976.
- Wray, J.D.: Population pressure on families: family size and child spacing. Reports on Population/Family Planning, P.C., 9:419, 1971.